

통신공간에서도 활발한 책읽기와 토론

집현전, '책 읽는 마을', '책사랑동호회', '헌책방 사랑 누리' 등 다양한 활동 꾸준

본격적인 정보통신시대가 열리면서 컴퓨터 통신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뤄지는 중요한 공간으로 떠올랐다. 개인적이고 정적인 행위인 독서에도 이런 변화는 영향을 미쳤다. 통신공간에서 벌어지는 활발한 독서토론이 그것. 통신업체마다 동호회나 소모임 등 독서토론모임이 있고, 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책에 대한 관심과 정보를 나눈다.

책에 대한 비평과 감상 나누는 곳

통신업체 가운데 가장 오래된 하이텔에는 '책 읽는 마을(go sg91)', '독서토론모임 비말'(go sg58)과 '이야기나라(go story)'가 문을 열고 있다. 지난 96년 12월에 결성된 '책 읽는 마을'은 한마디로 "돈이나 시간이 있으면 서점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수가 503명이나 되어 소모임이라고 하기에는 덩치가 크지만, 시삽 권오성씨는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여러가지 잇점에도 동호회로 승격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게시판의 내용은 주로 책에 관한 감상과 비평이 중심을 이룬다. 특히 신설된 '독서토론마당'은 주제를 정해 의견을 나누는 곳인데, 하루키 등 일본 현대문학에 매료되어 있는 회원들의 관심을 반영해 <일본현대문학의 유입>을 첫번째 주제로 삼았다.

'독서토론모임 비말'은 오늘의 세미나를 주요 공간으로 책이나 주제를 정해 이야기를 나눈다. 지난 6월로 981회째를 맞은 세미나는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가 토론대상이었다. 출간된 지 오래되었지만 시의성보다는 주제의식에 초점을 맞췄다. 또, 일본만화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기도 했는데, 좋다/나쁘다의 가치판단보다 일본만화를 하나의 문화로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창작과 비평의 비중을 반반으로 두어 다른 곳보다 창작모임이 활기를 띠는 '이야기나라'는 최근 오프라인 독서토론모임으로 '넷거리주점'을 시작했다. 한국의 단편·중편소설을 중심으로 좋은 작품과 작가를 찾는 데 주력할 예정인데, 첫번째 토론대상은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은희경의 <아내의 상자>로 결정되었다.

천리안은 '책사랑동호회(go bl)'와 '독서토론모임 집현전(go read)'이 활동중이다.

본격적인 통신시대가 열리면서

독서행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통신공간에서 활발한

독서토론과 책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공간이 마련된 것. 아직까지

단순한 감상과 정보 나누기에

그치고 있지만 장르별 분화모임과

주제별 비평활동까지 벌어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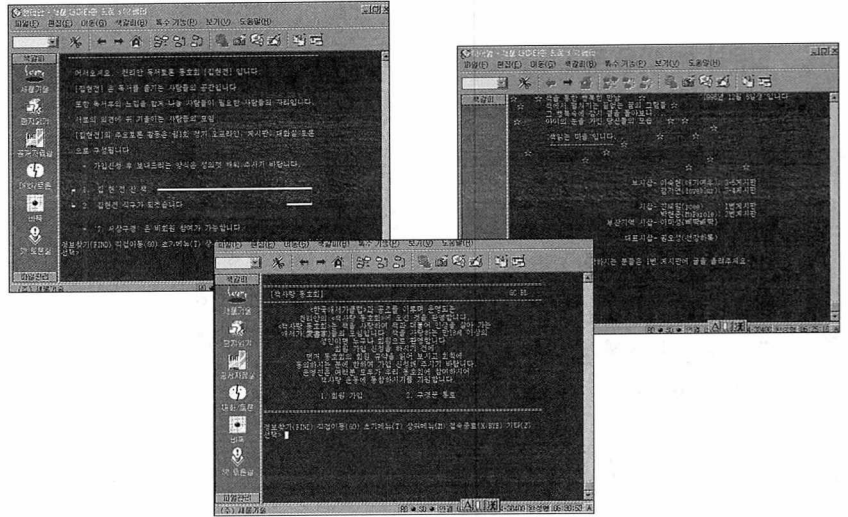
452명의 회원을 거느린 집현전은 결성된 지 4년째를 맞고 있다. 정기모임을 한달에 한번 씩 전국을 돌아다니며 하고,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는 MT가 모임의 윤회율 역할을 한다. 올 2월에는 회지를 창간하여 온라인상에서 소극적인 회원들까지도 끌어안으려 한다.

소모임 가운데서는 '고전읽기'가 가장 활발한데, 최근에는 <희랍인 조르바>를 읽고 이야기를 나눴다. 시삽 정기화씨는 "근래에 가장 화제가 됐던 토론주제는 임영태의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어>를 읽고 벌어진 사형제도의 존재여부였다"고 전한다.

'책사랑동호회'는 잘 알려진 중견모임 '에서기클럽'이 PC통신에 요청해서 1995년 9월 만들어진 모임이다. 책사랑이라는 공동기반을 통해 남녀노소 없이 참여하는데, 소비자자와 독자의 시각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책을 쓰고, 출판하고, 수집하고, 판매하고 읽는 책사랑운동을 벌인다.

시삽 정우영씨는 "다른 독서토론모임과는 달리 책사랑동호회는 책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갖는다"고 말한다. 책의 내용뿐 아니라 서지학적 의미도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이다. 또, 이제까지 세번 정도 행사를 치른 '꼬마 책바자회'는 회원들의 사연이 깃든 책을 경매에 붙여 수익이 생기는 대로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본부에 보낸다.

후발 통신업체인 나우누리에서는 '출판비평모임(go sgbbpb)'과 '헌책방 사랑 누리(go sghbook)'가 눈에 띈다. 98년 1월 탄생한 '헌책방 사랑 누리'는 무수히 쏟아져



통신공간의 독서토론 소모임 '집현전', '책사랑동호회', '책 읽는 마을'의 초기화면(왼쪽부터).

나오는 신간보다는 헌책방에까지 살아남는 책들을 대상으로 한다. 시삽을 맡고 있는 최중규씨는 "헌 책의 존재여부는 그 나라 문화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라는 신념으로 전국의 헌책방을 뒤진다. 애정없는 눈으로 보면 학습참고서만 가득 쌓인 곳으로 보이지만 헌책방마다 나름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용산의 헌책방은 종합 헌책방으로 옛날 도색잡지까지 찾아볼 수 있고, 미술관련 외국서적은 흥대 앞 헌책방을 따를 수 없습니다. 독립문 근처 헌책방에서는 정부에서 펴낸 책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회원들은 헌책방 약도를 올리고, 오프라인에서 만나 헌책방을 순례한다.

'출판비평모임'은 1996년 2월에 신설된 동호회로 출판사 등 직간접적으로 책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어 신간자료가 다른 곳보다 풍부하고 다양하다.

책 정보의 질적·양적 발전 도모

책을 좋아하는 내성적인 사람들에게 얼굴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통신 모임은 숨어들기 좋은 방이다. 하지만 이들 모임들은 고민이 많다. 그 가운데 정체성을 찾는 작업이 무엇보다 힘들다. 성격이 비슷한 모임이 많고, 장르별로 분화된 모임들이 생겨나 독서토론도 분야별로 나뉘는 추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책사랑동호회의 최우영씨는 "내부적으로는 '책사랑동호회'지만 등록된 명칭은 '에서가동호회'다. 유사모임이 많아 책사랑동호회라는 이름으로는 등록을 할 수 없

었다"고 밝힌다. 회원이 많아지면서 여러 이름의 게시판들 만들다 보니 내용 역시 나날이 비슷해져간다. 대표적인 것이 음악이나 영화 등 대중문화에 대한 정보나 감상을 나누는 마당이다. 또, 회원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보의 질이 고르지 않다. 어떤 경우는 재미있다/없다는 주관적인 판단이 비평의 이름으로 올라오기도 한다.

'책 읽는 마을'의 권오성씨는 "서로의 견해가 치열하게 오가는 토론은 아직 미숙하다. 책을 좋아하는 생활인으로서 소박하게 책 읽는 느낌을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 집현전의 토론실도 비슷한 분위기라고 정기화씨는 말한다. 속도감과 정보의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동호회와 독서토론모임은 분명히 차별된다. 독서토론모임의 구성원들은 책이 지니는 수많은 주제와 소재 속에서 균형감을 잃지 않으려 하고, 글과 책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다.

이들은 통신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극적이고, 퇴폐적인 글을 스스로 걸러내 건전한 모임으로 이끌려는 의지를 보인다. 어떤지 어울리지 않는 종이책과 통신의 만남을 필연적이라고 말하는 동호회 사람들은 "활자문화의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상의 독서토론모임은 장기적으로 책관련 정보의 양적·질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모임의 미래를 점치고 있다.

— 이현주 기자